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건설 업체

## 건설 업체 해외 수주 시장에 역점

국내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삼성, 대우, 우림, 현진, 월드, 반도 등 중견 건설 업체들이 해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7년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 건설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디터 | 김대환 · 자료 제공 | 대우건설, (주)반도, 우림건설, 해외건설협회, 현대건설

**2006**년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2월에는 해외 건설 수주 누계액이 20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8월 들어서는 2005년 수주 실적인 109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11월에는 144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내 기업의 대외 신인도 향상과 더불어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건설 시장이 활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업체들은 주력 시장인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등 신흥 시장으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2007년에는 국내 건설 시장 침체로 말미암아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림건설 카자흐스탄에 새 지평을 열어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 원가 공개 등에 따른 국내 건설 시장의 공급 확대에 대한 어려움과 글로벌한 부동산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 SK건설, 우림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해외 공사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소 건설 업체 또한 국내 주택 사업에 주력하면서도 공공 사업의 비중 확대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카자흐스탄의 '국가 건설 관리국' 으로부터 알마티시 우림 애플 타운(Woolim Apple Town) 복합 단지 개발권을 수주했다. 총 2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지 8만 1600여 평, 연

면적 38만 1000여 평에 3500여 가구의 아파트 및 오피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우림 애플 타운 복합 단지 개발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림 애플 타운은 11단계에 걸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완료해 지난해 12월 카자흐스탄 건축가협회에서 'Gold Medal' 을 수상하는 등 사업에 대한 신뢰를 인정받았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사업 승인을 직접 진행한 우림건설 원완권 사장은 "애플 타운은 단순히 수주 사업이 아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로 카자흐스탄을 넘어 중앙 아시아의 건설 시장에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림 애플 타운 복합 단지는 알마티시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차별화된 평면 개발과 첨단 시스템이 접목된 유비쿼터스, 외관 디자인의 차별화 등을 통해 알마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대표적인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수주한 UAE의 버즈 두바이다. 버즈 두바이는 연면적 15만 평, 높이 700m로 2008년 완공될 경우 세계 최고층 건물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만 TFC 101빌딩,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완공에 이어 버즈 두바이까지 직접 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초고층 건물의 건축·시공에 대한 입지를 확보해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초고층 건설 시장에서 선점을 누릴 전망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비아, 카타르 등 기존의 진출 지역에서 해외 매출액을 1조원 이상 끌어올려 해외 부문의 매출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앞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그룹의 해외 공사 수주와 중국 현지의 네트워크를 통한 중국 사업의 확대 등 해외 사업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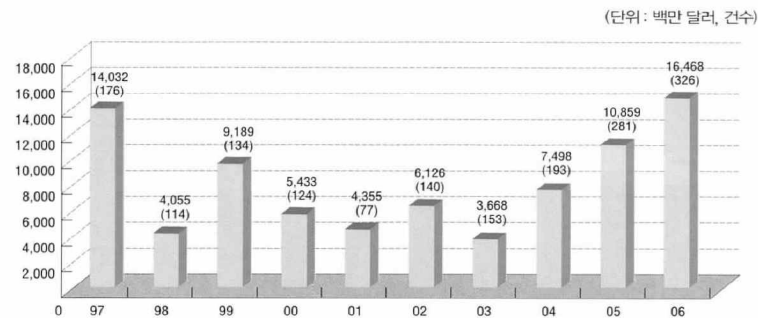
**국내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은 청신호**

창립 60주년을 맞은 현대건설 역시 해외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수주액은 작년과 비슷한 9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카자흐스탄 등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 시장을 넓혀 지난해 27억 달러에 이어 올해 30억 달러 수주 계획을 세웠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고급 콘도미니엄 공사권을 따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현대건설은 이를 계기로 싱가포르 건설 시장에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조만간 발주 예정인 센토사 및 마리나 베이 프린트 지역의 대형 건축 공사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월드건설은 메르디앙의 브랜드 인지도를 2010년까지 톱 5로 끌어올린다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현진종합건설 역시 국내 물량 확대에 이어 카자흐스탄·중

국·두바이 등지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반도건설이 두바이에 오피스, 아파트, 상가로 구성된 54층 규모의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왔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인해 해외 사업으로 눈을 돌렸고, 자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국내 건설 업계는 '1·11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이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김중현 실장은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국내 건설 업체들이 사업성 위주로 해외 공사 수주에 힘쓰고 있다"고 말한다.

앞으로 베트남·카자흐스탄·중국 등 일부 아시아 지역의 개발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 업체의 해외 진출은 내수 진작은 물론, 국내 경기 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표1, 해외 건설 수주 추이〉 자료 제공 : 해외건설협회

순위	'04		'05		'06	
	업체명	수주 실적	업체명	수주 실적	업체명	수주 실적
1	현대중공업	1,444	현대건설	2,525	현대건설	2,693
2	GS건설	1,351	SK건설	1,690	현대중공업	1,922
3	현대건설	931	대우건설	1,261	GS건설	1,613
4	두산중공업	869	삼성ENG	1,011	삼성ENG	1,553
5	삼성물산	609	GS건설	994	대우건설	1,341
6	대우건설	547	현대중공업	812	두산중공업	1,053
7	SK건설	393	두산중공업	555	포스코건설	807
8	풍림산업	168	동일하이빌	328	SK건설	594
9	삼성ENG	145	남광토건	243	대림산업	558
10	대림산업	144	엔코	224	삼성물산	511
총계		6,601		9,643		12,645

〈표2, 업체별 수주 추이〉